

“너희들이 원했던 PS 정말 마음대로 하라”



KT 이강철 감독

선수시절 PS 29경기 누뒀던 이강철 감독 첫 가을 앞둔 선수들에 던진 통큰 한마디 박경수 “신뢰 리더십...필승의지가 저절로”

“땀 있으면 그 성적이 나왔겠어요?”

1989년 한국시리즈(KS). 대졸 신인 이강철(당시 해태 타이거즈)은 2경기에서 8이닝을 소화하며 2세이브를 챙겼다. 시리즈 최우수선수(MVP) 수준의 활약이었다. 화려한 출발은 커리어 내내 이어졌고, 포스트시즌(PS) 통산 29경기에서 74.1이닝을 소화하며 5승3세이브의 호성적을 올렸다. 이강철 KT 위즈 감독은 신인시절 KS 첫 등판에 대해 물으면 “별로 긴장은 안했다.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내 타이틀을 노렸다”고 회상한다.

선수로, 투수코치로, 수석코치로 나선 큰 경기는 이 끝이 날 정도로 치렀다. 이 감독은 이제 사령탑으로 첫 PS를 앞두고 있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위대한 걸음이었다. 1군 진입 4년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KT는 지난해 창단 첫 5할 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첫 PS 진출까지 달성했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PO)에 직행해 타 팀의 도전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 감독은 “밖에서 볼 때 ‘아, 이래서 KT가 2위를 했구나.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허무하게 지고 싶지 않다”며 “선수들이 긴장해서 발이 안 나 갈까 그게 걱정이다”고 말했다. 평소 선수들과 미팅을 자제하는 그는 PS를 앞둔 첫 훈련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줬다. 너희가 원하던 PS 무대에 올라왔으니 이제 정말 마음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당장 올해부터 선수들이 마음 놓고 뛰는다면, 이 경험 이 내년과 내후년에 이어질 것이라 믿을 수 있다.

사실 ‘편하게 하라’는 말은 하는 사람이 쉽고, 듣는 사람은 어려운 말이다. 이 감독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막상 그라운드 위에서 마음을 편히 먹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입버릇처럼 강조할 계획이다.

선수들도 이 감독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박경수는 “감독 이강철의 리더십은 사랑과 신뢰, 인정이다. 감독님은 항상 ‘너희를 위한 야구를 하라’고 하시지만, 지도자가 선수를 인정하고 배려하니 선수들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필승의지를 다졌다. 배제성도 “우리는 정규시즌 동안 충분히 잘해온 팀이다. 2위 팀의 일원인 게 자랑스럽다”며 “PS는 보너스 게임이다. 잃을 게 없는 팀이니까, 재밌게 하자 할 것만 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감독은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2위를 확정된 뒤 선수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포옹했다. 이 감독의 품에 안겼던 박경수가 활짝 눈물을 흘린 것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사이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었다. 이제 KT를 약하게 보는 이는 어디에도 없다. 시즌 내내 달렸던 의문부호는 2위라는 순위로 떼어냈다. 단지 한두 달 잘한 게 아니라 6월 이후 121경기에서 승률 0.592로 압도적 1위였다. 2020년, ‘KT다운’은 강함을 의미한다.

수원 | 최익래 기자



LG의 올해 포스트시즌 최종전은 곧 박용택의 프로 마지막 경기다. 박용택은 ‘레전드’라는 문구가 새겨진 보호장비를 고사한 뒤 그 자리에 팬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새겼다. 수많은 별명 중 ‘팬덕택’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팬밖에 모르는 박용택다운 결정이다. 사진제공 | LG 트윈스

못 말리는 ‘팬덕택’ 마지막도 팬이었다



“2002~2020. 19년간 팬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용택(41·LG 트윈스)은 올 가을, 조금 특별한 보호장비를 차고 생애 마지막 포스트시즌(PS)을 치른다. 팔과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암가드와 레그가드에 팬에 대한 감사를 새겼다. 올 가을, 박용택의 팔다리는 팬들이 지킨다.

박용택은 수년 전부터 사용했던 야구용품 업체 대표와 최근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대표가 은퇴 기념 보호장비를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용택도 선뜻 동의했는데, 초기 모델에는 ‘LG 트윈스 레전드 박용택’이란 문구가 적혀있었다. 박용택은 “낯 뜨겁다”며 이를 고사했다. 자신을 띄우기보다는 좀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떠오른 존재가 팬이었다. 박용택은 “2002년 데뷔 이후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팬들의 한결 같은 19년간의 사랑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 문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박용택이 타석에 들어서서 자제가 팬들에 대한 감사인사, 그리고 선수로서 보내는 마지막 안부의 인사가 된다.

박용택의 팬 사랑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젊은 시절 ‘쿨가이’로 불렸고,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할 때 ‘용암택’이 됐다. 연탄봉사를 할 때는 ‘연탄택’이 되는 등 이름 끝 글자 앞에 어떤 단어든 붙이

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수십 가지 별명 중 박용택은 ‘팬덕택’에 가장 애착을 드러냈다. 팬이 있는 덕택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올 시즌 은퇴를 앞두고 기념 유니폼을 출시했을 때 구단이 친필사인을 제안하자, “1000개쯤은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다”며 팬 사랑을 드러낸 바 있다.

2002년 데뷔해 올해까지 2236경기에서 타율 0.308(8139타수 2504안타), 213홈런, 1192타점. 박용택은 남긴 자의 커리어 최종 기록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예고 은퇴를 선언했고, LG를 제외한 9개 구단은 요란한 은퇴투어 대신 박용택의 다음 인생을 응원하는 행사를 차례로 열어줬다.

팬 사랑으로 유명한 박용택 감사글 장비 차고 이별인사 은퇴 유니폼 사인이벤트 팬 “앉은자리서 1000개는 거뜰”

39년 KBO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때린 사나이. 다른 수석야구가 필요 없는 ‘레전드’다. 굳이 암가드나 레그가드에 레전드라는 단어를 새기지 않아도 된다. 박용택이라는 이름 석 자만으로 충분히 빛나는 전설이다. ‘팬덕택’ 박용택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때린 사나이로 기억되는 것만큼이나, 가장 팬을 사랑한 선수로 기억되길 소망하고 있다.

박용택은 자신의 현역 마지막 경기까지 팬을 향한 감사를 새긴 보호장비를 착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택이 언제, 어떤 표정으로 자신의 보호장비를 풀게 될까. 박용택이 그토록 사랑하는 팬들은 그가 올 가을 가장 높은 무대에서 밝은 표정으로 장비를 풀기만을 바라고 있다.

ing17@donga.com

롯데의 미래 ‘나승엽·손성빈’이 보낼 특별한 한달

교육리그 참가 테이블 세터로 기용 실패하더라도 프로생활 미리 맛봐 “짧은 경험 내년 엄청난 자양분 될 것”

2020시즌이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021시즌 준비가 한창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내년 신인 나승엽(덕수고), 손성빈(장안고·이상 18)을 ‘낙동강 교육리그’에서 적극 기용하고 있다.

롯데는 3일 경남 김해 상동에서 치른 NC 다이노스와 교육리그 경기에서 손성빈(지명타자)~나승엽(3루수)으로 테이블세터를 꾸렸다. 이들은 2021 신인드래프트 1차지명고 2차 2라운드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다. 박현우 롯데 육성·스카우트 총괄은 4일 “교육리그 끝까지 이들을 테이블세터로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블세터로 육성하려는 의도보다는 한 타석이라도 더 많이 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에서다.

손성빈은 올해 12경기에 출장해 타율 0.359, 1홈런, 10타점으로 공수 겸장 포수의 모습을 뽐냈다. 롯데가 기대를 걸고 전국단위 1차지명권을 행사한 이유다. 나승엽은 23경기에서 타율 0.386, 2홈런, 27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106을 기록하며 초고교급 선수로 불렸다. 미국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에 입단하는 듯했지만 롯데의 불심양면 지원에 마음을 돌렸다.

시기도 맞아떨어졌다. 당초 KBO는 고3

선수들의 수업일수를 준수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11월 마무리캠프 참가를 금지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도 취업 또는 진학을 확정지으면 그 시간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다. 프로배구, 프로농구 신인들도 졸업식 전 팀에 합류해왔다. 이에 따라 유독 야구선수에게만 엄격했던 규정에도 슬럼프가 트였다.

나승엽과 손성빈이 교육리그에서 10타수 10홈런을 기록하더라도 사실 의미는 크지 않다. 지금 실패하더라도 타석에서 프로의 공을 보고, 날카로운 프로 수준의 타구를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2021시즌 준비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또 롯데 2군 선수들과 합숙하고 있으니 프로생활도 미리 배울 수 있다. 박 총괄은 “어찌 보면 짧



나승엽 손성빈

은 한 달의 경험이지만 이들의 내년을 위해서는 엄청난 자양분이 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나승엽과 손성빈이 보낼 한 달은 2021년과 그 후 이들의 야구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확실한 것은 때마침 규정이 바뀌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출발은 순조롭다는 것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다저스 우승 주역’ 베츠 5년연속 골드글러브

콜로라도 아레나도는 8년연속 수상

LA 다저스를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무키 베츠가 5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차지했다. 4일(한국시간) 발표된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명단에서 내셔널리그 우익수로 이름을 올렸다. 콜로라도 로키스 놀란 아레나도는 내셔널리그 3루수 부문에서 8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

다. 아메리칸리그 좌익수 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캔자스시티 로열스 알렉스 고든도 8번째 수상에 성공했다.

반면 시애틀 매리너스 1루수 에반 화이트를 비롯한 11명은 생애 첫 골드글러브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총 18명의 수상자 중 무려 61%에 해당한다. 이처럼 생애 첫 수상자를 대거 배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키 베츠

골드글러브는 수비만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지난해까지는 각 팀 감독과 코치 1명씩도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야구연구협회(SABR)의 수비지표인 SDI를 종전 25%에서 100% 반영했다.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채 객관적 데이터만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다보니 무더

2020년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명단		
아메리칸리그	부문	내셔널리그
그린리프 (LA 에인절스)	투수	맥스 프리드 (애들랜트)
로베르트 페레스 (클리블랜드)	포수	터커 반하트 (신시내티)
에반 화이트 (시애틀)	1루수	앤서니 리조 (시카고 컵스)
세르 에리안데스 (클리블랜드)	2루수	콜트 윙 (세인트루이스)
이시아 카이냐-팔레파 (텍사스)	3루수	놀란 아레나도 (콜로라도)
JP 크로퍼드 (시애틀)	유격수	해비에르 바에스 (시카고 컵스)
알렉스 고든 (캔자스시티)	좌익수	타일러 오닐 (세인트루이스)
루이스 로베르토 (시카고 화이트삭스)	중견수	트렌트 그리섬 (샌디에이고)
조이 갈로 (텍사스)	우익수	무키 베츠 (LA 다저스)

기로 생애 첫 수상자가 나왔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